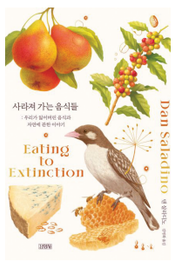
‘아라비카 커피’부터 ‘꿀’까지…멸종 위기의 음식 재료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사라져 가는 음식들

댄 살라디노 지음, 김병화 옮김



먼 북극해 스발바르섬에는 세계 최대 종자 저장고가 있다. 섬에 있는 산에서 135미터 터널을 뚫고 들어간 지점이다. 이곳에는 100만 종 이상의 종자 컬렉션이 있는데, 수천 년 농경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저장고 안에는 1000가지 곡물의 다양한 품종이 보관돼 있다. 벼 샘플이 17만 종에 이르고 옥수수가 3만9000종, 감자 2만1000종 그리고 귀리 3만5000종이나 된다. 물론 작물별로 야생 친척도 있다.

BBC기자이자 음식저널리스트 댄 살라디노가 쓴 ‘사라져 가는 음식들’은 잃어버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음식의 다양성과 연관된 곡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저자는 BBC라디오4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10년 넘게 세계를 돌았다. ‘문명의 여명이 남아 있는 튀르키예 황금빛 밀부터 한국의 천연기념물 오계’에 이르기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음식이 대상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의 재료가 되는 농작물, 식물, 동물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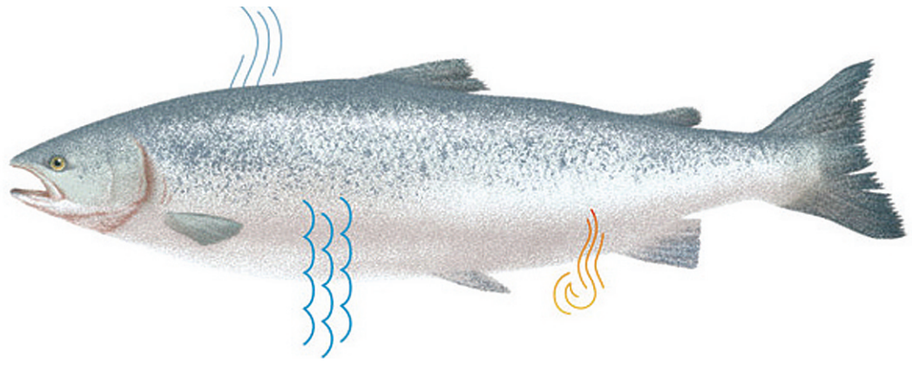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음식은 세계의 내적 작동 방식을 이해해주는 완벽한 렌즈다. 저자는 음식을 모티브로 정치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넘나들며 풍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곡물, 채소, 해산물, 육류 등 책에 등장하는 음식은 34가지인데 이들 음식과 동식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류와 함께 해왔다.

저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음식 가운데 하나로 귤을 든다. 약 16만 년 전 인류 인구는 기후 변화로 거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1만 명에서 200~300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추정되는데 거의 멸종 직전이었다. 그런 인류를 구해준 것은 다름아닌 해산물이었다. 생존자들은 아연을 비롯해 요오드, 아미노산이 풍부한 굴을 먹었는데 이는 두뇌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탄자니아 에야시 호수에 있는 하드자족은 꿀을 채취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꼬리에 힌 줄기 흰색 깃털이 있는 벌꿀길잡이새와 협업을 한다. 새는 바오바브나무 가지에 가려진 벌집을 찾지만 벌들을 제압할 수는 없다. 새의 역할을 거기까지다. 그와 달리 인간은 벌집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벌꿀길잡이새 도움으로 발견을 한다. 그리고 나면 연기를 피워 벌의 접근을 막는다.

고품질의 아라비카 커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한 곳에서 생산된다. 대개 고산지대가 그런 곳인데 오늘날 에티오피아에서 아라비카 65%가 이번 세기 말에는 작물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후 변화 때문이다. 농부들은 더 서늘한 높은 지역을 찾아 이동하지만 그런 곳은 최대 고도에 근접해 있어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저자는 과도한 개발로 동식물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본다. 단일 품종을 심고 비료를 뿌리기 위해 삼림을 밀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전적인 단일 식물 재배는 소수의 엘리트 품종을 제외한 토착 품종 퇴출이라는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세계화와 대량생산은 음식의 종말로 이어지고 음식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야생 대서양 연어. 〈김영사 제공〉

책에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남아메리카 안데스 고지까지 특별한 음식에 담긴 사연이 가득하다. 이밖에 멕시코의 올로톤 옥수수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야생 대서양 연어, 카자흐스탄의 시베르스 사과, 조지아의 크레브리 와인 등의 이야기도 소개돼 있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세계화와 대량생산은 음식의 종말로 이어지고 결국 음식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가축을 길들여온 1만2000년 동안 대부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었다. 고대의 벽화와 종교 아이콘화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생물에 품었던 경외심과 존중심을 본다. 지금은 그런 태도가 거의 사라졌지만, 먼 오지의 공동체나 소규모 농장에서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과 귀중한 유전학은 위기에 처했으며, 진정한 기원, 고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감각도 마찬가지다.”

〈김영사·2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편집후기

오경철 지음

“정성을 다해 만든 책에 대해서 편집자로서 작은 흔적을 남기고 싶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지라도 언제가 되었든 그 책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표식 같은 것 말이다.”(작가의 말 중에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그중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편집, 교정, 출간까지 전 과정을 맡는 편집자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책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편집후기’는 이름 없는 편집자의 고충과 일상을 담담히 써내려간, 말 그대로 비하인드 스토리다.

저자인 오경철은 문학동네, 돌베개, 민음사 등 유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 베테랑이다. 이 책은 20년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들을 펴내면서 느낀 고뇌와 사유를 담고 있다. “가끔 나는 내가 무척 이상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한다. 남이 쓴 글을 읽는일, 그것이 내 직업인 것이다.”(본문중에서). 그의 독백대로 책을 만드는 일은 직업일까? 사랑일까. 이같은 의문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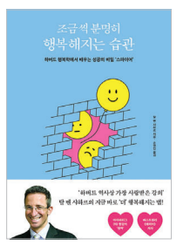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편집자는 단순히 남의 문장을 읽고 고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책의 기획 단계부터 표지, 날개지, 뒷면, 보도자료 작성까지 관여해야 하는 탓에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론 만족스러운 책을 만들어내지 못해 좌절하고, 출판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실망해 회의를 느낀 적도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건 누구보다도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엄격해진 사람의, 어떤 정직한 사랑의 기운이 그의 글에는 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서울대 교수)의 말대로, 책을 읽다 보면 편집자이자 애독가인 저자의 만만치 않은 내공이 읽힌다. 〈교유서가·1만6500원〉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

탈 벤 샤하르 지음



“나는 나의 불행 때문에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울증이라고 의학적으로 구분 짓는 문턱을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때 슬픔과 스트레스를 깊게 경험했고 그로 인해 긍정 심리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지금은 행복한가요?’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모르겠어요’ 이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강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리는 ‘행복’ 수업을 통해 전 세계에 행복학 열풍을 일으킨 ‘긍정 심리학의 대가’ 탈 벤 샤하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펴냈다.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이 선언됐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됐다. 미래에 대해 희망보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더 많아졌다.

저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오히려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오히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어 상실감을 느낀다는 문제가 있다.

탈 벤 샤하르는 행복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마음의 안녕(Spiritual Wellbeing)’. ‘몸의 안녕(Physical Wellbeing)’, ‘배움의 안녕(Intellectual Wellbeing)’, ‘관계의 안녕(Relational Wellbeing)’, ‘감정의 안녕(Emotional Wellbeing)’까지 ‘스파이어(SPIRE)’를 통해 행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에는 각 장마다 현재의 행복 수준을 확인하고, 그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습관이 정리돼 있다. 누구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로 인해 지금보다 단 1점만 높여도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생각·1만7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민주주의의 모험

신기욱 지음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정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UCLA 등에서 교수로 재직한 신기욱이 펴낸 ‘민주주의의 모험’이 그것.

한반도를 둘러싼 좌우 이념논리와 신냉전 이후 첨예한 국제관계 속에서 글로벌 민주주의의 명확한 좌표 설정은 지난하다. 저자는 이러한 대립각 속에서 민주주의의 실종을 경계하며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퇴보 경향을 우려한다. 책은 향후 국제정세를 중국이 미국을 쉽게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한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지속 가운데 미중갈등,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권위주의 체제의 리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푸틴은 위기에 빠졌고, 시진핑 역시 고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예시로 들며 글로벌 분쟁사의 하나의 패턴이 있음을 분석한다. 나아가 국제정세에 영원불변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고, 한 쪽의 위기와 몰락 시 다른 한 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아울러 책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슈퍼 네트워크, K-컬처와 소프트파워 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성책임자(CDO)를 두고 급변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하나의 사례로 보여준다. 새로운 국제관계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인도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까지 톺아보게 한다.

〈인물과사상사·1만8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